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0년간 GDP 연평균 6.6% 성장...세계 경제성장 공헌율 30% 초과

-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사회 발전성과 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연평균 6.6% 성장하여 동기간 전 세계 연평균 GDP증가율인 2.6%와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GDP증가율 3.7%를 상회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30%를 초과하여 글로벌 1위를 차지함
- 2021년 중국 경제총량(经济总量, economic aggregate; 재화, 서비스, 노동, 자산 등 각각의 시장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는 경제지표)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2012년 대비 7.2%p 상승했으며, 2012년 대비 69.7% 성장, 연평균 성장률은 6.1%로 나타남. 2021년 소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헌율은 65.4%로 2012년 대비 10%p 상승하였음
- 중국의 화물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2020년 5조 3,000억 위안(약 1,050조 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 2021년 화물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6조 9,000억 위안(약 1,367조 원)으로 세계 1위 타이틀을 유지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9/19/content_25940144.htm

2 中, 경공업·방직제품 수출액 글로벌 30% 이상 차지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내 매출 100억 위안(약 2조 원) 규모의 소비재 생산업체는 150개사로 경공업·방직제품 수출액이 글로벌 30% 이상을 차지함
- 지난 10년간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소비재 공업 기업수가 23.7% 증가하여 17.2만 개사로 전체 공업기업의 38.5%에 달했고 부가가치는 전체의 27.9%로 상승

- 소비재 생산 및 공급의 품질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스마트 가전시장 규모는 2016년 2,000억 위안(약 40조 원)에서 현재 5,000억 위안(약 99조 원)으로 성장하고 식기세척기, 바닥청소기 등 신제품이 인기임
- 주파수 변환 압축기, 볼펜심 등 핵심부품 분야가 약진하고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기능성 의류 등 혁신제품도 점차 증가하며, 약성종양 등 신약 연구개발도 진전이 있었음
- 소비재 품질 만족도와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제고됨. 의류, 가전, 신발 등 업종은 국제표준과의 일치율이 95%로 상승했고 영유아용 조제식품 품질 합격률은 연속 5년간 99% 이상을 기록. 운동화, 자전거, 뷰티제품은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임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소비재 공업기업은 부가가치, 이윤 총액, 수출 납품액이 전체 공업기업의 1/4를 차지하고 기업수, 종사자수가 전체 공업기업의 40%를 차지.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소비재 공업 분야에서 품목 확대, 품질 제고, 브랜드 육성 등 3대 전략을 전개할 계획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www.ce.cn/cysec/newmain/jdpc/fz/202209/21/t20220921_38117486.shtml

3 中, 소비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량 글로벌 1위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개최한 ‘차세대 정보기술(IT) 산업 전폭 발전’ 주제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 전자제품 생산량과 판매량이 글로벌 1위로 성장하였음
-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소비 전자제품의 중요한 제조기지로 주요 전자제품 생산 및 OEM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 제조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음(*소비 전자제품이란 주로 대중소비 시장을 겨냥한 전자제품이며,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컬러 TV 등이 포함)
- 중국의 소비 전자제품 산업은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혁신능력이 제고되고 브랜드 육성 효과도 뚜렷함.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선도산업 육성을 가속화하여 차세대 음향기술, 가상 현실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콘텐츠, 컴퓨팅,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산업체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며 신기술을 통한 혁신발전을 통하여 정보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릴 예정임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9/21/content_25940618.htm

4 中, 동서부 지역간 격차 축소...조화로운 발전 도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중서부 지역의 생산액은 22.2조 위안(약 4,388조 원)에서 49조 위안(약 9,684조 원)으로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의 평균 수준을 상회했고 1인당 GDP의 동부지역과의 비율이 5.8%p 상승하여 동부 지역과의 격차가 한층 축소됨
- 중서부 지역에는 18개 성(省)이 포함되며 면적과 인구는 각각 전국의 82%, 53%에 달하며 2021년 중부와 서부지역의 GDP는 각각 25조 위안(약 4,942조 원), 24조 위안(약 4,744조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0%, 21.1%로 상승했음
- 서부지역은 청정에너지, 디지털경제 등의 발전이 빠르며 전력의 타지역 수송 비중이 전국의 70% 이상, 천연가스의 동부지역 수송량이 7,000억㎥로 5억 규모의 인구가 수혜를 입고 있음
- 중부지역은 식량생산기지, 에너지재료기지, 첨단장비제조 및 하이테크 산업기지로 건설성과가 뚜렷하며 식량 생산량이 전국의 30% 이상,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의 1/4를 차지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ijckb.cn/2022-09/21/c_1310664362.htm

5 中,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20여개 도시 지원조치 발표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70개 주요도시 가운데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증가하였고 일부 도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되었음
-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각각 50개, 56개로 전월 대비 각각 10개 5개 증가.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도시는 49개로 전월 대비 1개 증가, 중고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도시는 61개로 전월과 동일했음
-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분양 주택과 상업용 점포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한 도시 혹은 지역은 20여개에 달함. 9월 15일 칭다오시는 ‘동태적인 부동산 정책 완비’ 공지를 발표하여 부동산 구매 제한지역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고 9월 14일 쑤저우시도 일부 부동산 구매 제한조치를 완화시켰음

- 1~8월 상품방(商品房, 분양 주택과 상업용 점포) 판매면적과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0%, 27.9% 감소, 부동산 개발투자는 7.4% 감소하였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중국경제시보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9/202209161606281091.html>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09-19/A1663552703461.html>

6 中, 올해 1~8월 재정수입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예산(一般公共预算)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3조 8,043억 위안(약 2,736조 원)으로 집계됨
- 중앙정부 수입은 2.8% 증가한 6조 3,616억 위안(약 1,261조 원)이고, 지방정부 수입은 4.5% 증가한 7조 4,427억 위안(약 1,475조 원)임
- 1~8월 정부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한 16조 5,177억 위안(약 3,273조 원)이며 사회보장·취업, 위생건강, 교통운수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출이 보장되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9/20/content_25940480.htm

7 中, 1~8월 발전 설비용량 전년 동기대비 8% 증가

-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1~8월 발전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24.7억 킬로와트, 이 중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16.6% 증가한 3.4억 킬로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7.2% 증가한 3.5억 킬로와트임
- 주요 전력 생산업체의 전력공급 프로젝트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한 3,209억 위안(약 63조 원)에 달했고, 이 중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323.8% 증가한 1,025억 위안(약 20조 원),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10.7% 증가한 2,677억 위안(약 53조 원)으로 집계됨

자료원 : 중국 국가에너지국

<https://www.yicai.com/news/101542860.html>

8 中, 8월 요식업 매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한 3조 6,258억 위안(약 719조 원)이며, 이 중 요식업 매출은 8.4% 증가한 3,748억 위안(약 74조 원)임
- 1~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한 28조 2,560억 위안(약 5,600조 원)이며, 이 중 자동차를 제외하면 0.7% 증가한 25조 3,662억 위안(약 5,027억 원)임
- 소비 유형별로 상품 소매판매액은 1.1% 증가한 25조 5,078억 위안(약 5,055조 원)이며, 요식업 매출은 5.0% 하락한 2조 7,482억 위안(약 545조 원)임
-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3.7% 증가한 8조 4,295억 위안(약 1,671조 원)이며, 이 중 상품 소매판매액은 5.8% 증가한 7조 2,414억 위안(약 1,435조 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의 25.6%를 차지. 상품 중 식품류, 의류, 일용품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각각 16.5%, 4.0%, 4.8%임
- 규모이상(*규모이상 기업 :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도매기업, 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의 소매기업 포함) 슈퍼, 편의점, 전문점(专业店) 소매판매액이 각각 4.1%, 4.8%, 4.6% 성장하고 백화점과 전문매장(专卖店) 소매판매액은 각각 6.6%, 0.5% 감소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sp/bwzg/202209/16/t20220916_38109036.shtml

9 中,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로 본 중국경제 요약

- 지난 9월 8일까지 중국 내 상장업체 4,904개사가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공개했으며, 이 중 2,961개사의 매출과 2,312개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매출, 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등 3개 지표가 모두 증가한 기업은 총 1,883개사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광둥성 264개사, 저장성 257개사, 장쑤성 244개사, 베이징시 181개사, 상하이시 116개사 등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화학공업 210개사, 기계공업 168개사, 전자설비 및 부품 15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전기설비, 금속, 비금속 및 채광, 제약, 반도체 제품 및 설비 등으로 집계됨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http://www.nbd.com.cn/articles/2022-09-10/2461330.html>

10 中, 지역별 다양한 조치로 대외무역 잠재력 제고

- 대외무역 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들은 다양한 조치로 대외무역 잠재력 발굴에 주력할 예정임
 - 해관 통계에 따르면 1~8월 광둥, 장쑤, 저장, 상하이, 베이징, 산둥, 푸젠 등 7개 지역은 수출입이 모두 1조 위안(약 199조 원)을 초과했지만 수출입 총액은 20조 5,400억 위안(약 4,078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10.1%보다 낮았음. 다만 저장, 베이징, 산둥 수출입은 각각 18.8%, 18.3%, 18.2%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9월 13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제기했고 상무부도 9월 14일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지방 상무기관에서 무역업체를 지원하여 생산을 보장하고 신규 주문을 확보할 것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광둥, 저장, 장쑤 등 지자체는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 등 지원서비스 강화, 대외무역 신업종 발전 지원, RCEP 혜택 제공 등 방면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의 중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중국기업들의 수출 서비스가 강화됨. 최근 이우상청그룹(义乌商城集团)에서 구축한 스페인 기업대상 온라인 플랫폼에는 현지 바이어 3,500명이 신규 가입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news.cn/fortune/2022-09/22/c_1129021851.htm

11 中,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51만 위안대로 상승

- 상하이강렌(Mysteel) 발표에 따르면 9월 21일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2,500위안(약 50만 원) 상승하여 톤당 51만 위안(약 1억 원)으로 치솟았음
- 산업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1,000위안(약 20만 원) 상승, 수산화리튬 가격은 톤당 3,500~5,000위안(약 70~100만 원) 상승, 니켈 브리켓(Nickel Briquette) 가격은 톤당 3,800위안(약 76만 원) 상승, 리튬인산철 가격은 톤당 1,000~1,500위안(약 20~30만 원) 상승함

자료원 : 경제관찰망

<http://www.eeo.com.cn/2022/0922/559189.shtml>